

시울주보

제2321호 2021년 1월 3일(나해)

주님 공현 대축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종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 이사 60,1-6

화답송 |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풀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꽂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

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 에페 3,2.3-5-6

복음환호송 |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 음 | 마태 2,1-12

영성체송 |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서울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조명이 너무 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에서도 밝은 별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별이 안 보이는 이유는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는 모두 다 밝혀지지 않아서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그 많은 별 중에서 그분의 별을 발견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펍박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끗끗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머나먼 지역에 살고 있는 동방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곳에 있었지만, 구세주의 별을 보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합니다. 지척에 있던 유다인들은 그분의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왜 별을 못 보았을까요? 혹시 너무 가까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였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별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친지, 혹은 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구세주께서 다시 태어나실 곳, 베들레헴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 구원으로 이끄는 별을 찾어야 합니다. 물론 저절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를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진리요, 길이라고 가르쳐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발 더 나가서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주님을 찾는 방법은 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구세주이신 주님은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알아보아야 하며, 오로지 하느님께만 모든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올 한해 나와 이웃 안에서 그분의 별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르젤리, 키르기스스탄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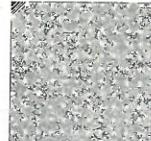
동력이 차단된 고산의 밤하늘은 빛틈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별들로 가득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로지 ‘그분의 별’만을 바라보며, 흑독한 사막의 길을 걸었을 박사들의 여정을 떠올려 봅니다. 화려한 욕망의 불빛들이 가득한 세상만을 평계 삼아 온 자신을 반성하면서, 오늘은 불 꺼진 성당 한편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분의 별’을 찾아 조배를 다녀와야겠습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말씀의
이삭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 | 청년밥상 문간 대표

사실 저는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조용히 묵상하며 느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책상 물림 같달까요. 부끄럽지만 제 성향은 입으로만 떠들기 좋아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사리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 생각해도 기이하네요.

저는 정릉시장 안에서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식당이지만 무엇보다 주머니가 가볍기 마련인 청년들이 부담 없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희 글라렛 선교 수도회에서 설립했답니다. 2015년 여름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고에 짚주림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청년에 대한 뉴스가 떠들썩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하신 전교 가르멜 수녀회의 강 세실리아 수녀님께서는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저에게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 아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안타까운 뉴스에 가슴 아파했었기에 수녀님의 제안에 공감했고, 그 날 저녁 수도회의 신부님들에게 전 했더니 모두 찬성하셔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회는 저를 가칭 '청년 식당'의 책임자로 임명하였고 저는 혐난한(?) 장사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식당은 2017년 12월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 느긋함이라 포장하는 저의 게으름과 책상 물림 같은 기질로 인해 준비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식당을 시작하고 서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분에 넘치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라는 것도 했고요. 어느 기자님께서 평소에 요리를 좋아하고 청년들을 많이 생각하셨느-

냐고 질문하셨는데, 문득 '내가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되었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저는 몸을 쓰기보다는 입만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성향대로라면 관구장 신부님께서 청년 식당의 책임자로 임명하셨을 때 자연스레 거절했을 테니까요. 식당 일이란 게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홀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관상 생활을 원하셨다고 합니다. 반면에 글라라 성녀께서는 만방에 두루 다니며 복음 선포를 바라셨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익히 아는 대로 두 분은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 이끄신 것이죠. 감히 두 분의 삶에 저를 비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께서는 제가 좋아하고 익숙한 삶에 놔두시지 않고 반대의 삶으로 내몰으신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짐작조차 못 했던 코로나19의 세상을 보낸 우리에게 올해 주님께서는 무엇을 마련해 놓고 계실까요. 확실한 것은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준비하시진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쁘게 받아들이자고 다짐해 봅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끼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
마태 25:13

차예지 챌리나
삼각지성당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가나 희망 교실 프로젝트

“

아피야, 학교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 카나수아 마을에 있는 삼위일체(Holy Trinity)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리아 벌마 수녀입니다. 저희 학교는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약 400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카나수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이나 일용직 일거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보건시설도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2014년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 교육을 진행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유아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마을의 부모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러 나가면 집안에 방치된 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기에 저희 수녀회에서는 정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초등학생이 되면서, 초등교육까지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 대한 평판이 좋아서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속해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 학교에 다니려는 아이들은 늘어나지만, 교실이 부족해 더이상의 아이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 운영을 위해 최소한으로 받고 있는 적은 학비조차도 가난한 부모들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교실을 늘리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그들에게 더 요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규제 정책 영향으로 많은 상점과 사무실 등이 문을 닫았고, 마을을 돌며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일거리를 구할 수 없어 가난한 이 마을 사람들이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취약한 아이들의 끼니가 걱정입니다.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의 경우 수녀회에서 하루 한 끼라도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또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떡을 것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생계를 위해 방황하지 않고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건강하게 미래를 꿈꿔가며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충분한 영양식을 나누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모아주세요.

마리아 벌마 수녀 | 가나 성령선교수녀회

‘가나 희망 교실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7,260만원 모금을 목표로 한마음한 몸운동본부가 펼치고 있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모아진 후원금은 한마음한 몸 운동본부를 통해 가나 삼위일체(Holy Trinity) 학교에 전해져 아이들에게 든든한 영양식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실을 추가 건축하는 활동에 지원됩니다.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모여진 후원금은 한마음한 몸운동본부의 ‘지구촌 빙곤 되찾기’ 사업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 몸운동본부
2021년 1월2일~2월5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가나 희망 교실 프로젝트’를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는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2021년 1월 1일까지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재)바보의 나눔(문의 : 02-727-2501)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오늘(1월 3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매년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 요셉의 해' 선포(2020년 12월 8일~2021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2월 8일(화)에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고, 가톨릭교회는 앞으로 1년간 특별한 방법으로 요셉 성인의 삶과 영성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날 발표한 교서『아버지의 마음』(Patris corde)을 통해 "모든 신자가 성 요셉의 모범을 따르고, 하느님의 완전한 충실성 안에서 신앙적 삶을 강화하길 바라며"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63년 1월 7일 김영식 베드로 신부(54세)
- 2000년 1월 5일 박은종 요한 신부(40세)
- 2015년 1월 8일 최용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7세)

1월 10일(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정규 미사 봉헌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상 제작 및 송출 인력 포함 20인 가능)
- 성당 내에서 대면 모임과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는 금지합니다.
- 성당 밖에서 하는 식사는 자제합니다. [5인 이상 금지]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손글씨 공모전

2021년 서울주보 코너 「나를 이끄는 성경 구절」 손글씨 공모전(2020년 11월 1일~30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총 198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52편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당선 되신 분들께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주보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선정된 작품은 접수 순대로 서울주보에 게재됩니다.

당선자

차예지 철리나 김민정 소화데레사 정혜운 프란치스카 권운혜 로사 손태복 브루노 박혜영 아네스 조영언 마리아 허윤선 아네스 최보라 비비안나 정혜선 마틸다 박지현 수산나 신서영 라파엘라 유정희 노엘라 김효식 엘리사벳 윤예지 에밀리아나 이현정 아미가 이종은 아네스 이미경 마르따 이문진 데보라 김인자 인나 이희은 엘리사벳 강석자 가브리엘라 김선희 세실리아 김민주 베로니카 임향 골룸바 최명숙 막달레나 박철 베네딕도 이은영 살로에 장혜란 마르타 오현숙 베로니카 정은희 마리아 이경성 요셉 박재은 율리아나 김수연 크리스토나 차경옥 베로니카 박문정 다프로사 강재은 베란느트 김태라 루칠라 김선중 미카엘라 김미혜 베레나 김경희 아네스 유인봉 스테파니 김태성 다니엘 김지현 엘리사벳 김경선 누실라 김지우 크리스티나 김정숙 노엘라 정은숙 수산나 김여종 피아 김여진 스테파니아 임국희 마리아 장자윤 정혜엘리사벳

교구정일령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1월5일 · 2월2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미사 취소 안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월 후원회원 월례미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없습니다. 비록 모여서 미사봉헌하지는 못하지만, 교정사목위원회 신부들이 언제나 후원회원님들을 기억하며,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향으로 미사와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02)921-5094

1월 자살유가족을 위한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1월16일(토)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 4층 413호(명동)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가족 면담 및 문의: 02)727-2495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
교육기간: 2월3일~6월3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신청기한: 1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휴관일정: 1월6일(수)~2월2일(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관련 온라인 설명회

대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관심 있는 본당, 수도회, 신자 / 내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와 지자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안내
때: 1월13일(수) 14시~16시
신청: http://bit.ly/3njI6rC(1월10일(일)까지 온라인 신청 필수) / 문의: 02)727-2272, 2283 환경사목위원회(ecocatholic@hanmail.net)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시	본원(중구 장충동)	010-4545-0578(www.lcm.or.kr)
성 베네딕도회 애완 수도원	매월 둘째주(토) 15시~(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월16일(토) 14시	성 빙첸시오의 집 요양원(경기도 양주시)	010-6625-0927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월10일(일) 14시	보문로27길 20	010-9353-1773 노아 수녀

인준단체 일정

모임

이냐시오 생활 피정·영적상담·성사·성소 상담
다음카페: 하비엘 영성학교(주최) / 문의: 010-2310-9432

골룸반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해외선교)
대상: 24세~40세 신자 / 문의: 010-3817-0567
때, 곳: 1월10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columban.or.kr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한라산눈꽃피정: 1월23일~25일, 1월29일~31일, 2월5
일~7일, 2월20일~23일, 2월27일~3월1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내용: 공복감 없는 효소단식으로 면역력도 올리고 성
체신심의 은혜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
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 회비: 36만원(단식 효소비 포함)
지도: 토마스 모어 원장 신부 / 문의: 010-9916-
5798 신부, 010-9363-7784 신 글라라
때, 곳: (금~월) 1월8일~11일·1월15일~18일·2월
19일~22일,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5차 1월22일(금)~30일(토) 문의: 061)373-3001,
제86차 2월5일(금)~13일(토) 010-3540-9001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 지도: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월9일(토)~10일(일), 3월27일(토)~28일(일)
3박4일 1월14일(목)~17일(일), 2월26일(금)~3월1일(월)
8박9일 1월31일(일)~2월8일(월)-신학생 2월16일(화)~24일(수)
40일 4월6일(화)~5월15일(토)

교육

신구약 성경통독 / 문의: 010-9401-9374
때, 곳: 2월19일~27일(8박9일), 상지 피정 집(주최)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월11일(월) / 문의: 02)338-3793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모집
때: 3월2일(화)~6월12일(토) 매주(화) 18시30분~21시
(14주간)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회비: 40만원(실습비 포함) / 접수는 홈페이지(caff.kr) 참조

복음화학교 142기 온라인 개강
복음화학교 142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수업(비
공개)에 초대합니다 / 문의(수강신청):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복음화학교 교육국
때: 1월11일(월) 14시~1월14일(목) 19시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공, CAD·CAM, 인성교육
때: 2월~12월(2월 예비학교) / 대상: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
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 회비: 7만원
대상: 기도하고 싶으나 방법을 모르는 신자
때: 1월26일부터 매주(화) 10시30분~19시40분(총6회)
곳: 사랑의 힘 빌딩 5층(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5층)
1월21일까지 접수 /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신입생 2차 모집

문화영성학 석사학위과정(5학기)
모집전공: 문화영성전공, 사목영성전공
곳: 성의교정(서초구 반포대로 222)
모집기간: 1월15일(금)까지 / 면접일: 1월22일(금) 예정
문의: 02)2258-7814(<http://gcs.catholic.ac.kr>)

예수회 특별 강좌 가톨릭 신앙과 영성(예수회센터)

강사: 주원준 박사 및 예수회 사제·수사(김정택·
조인영·송봉모·정제친·전주희·김우중)
때, 곳: 3월9일부터 매월 둘째·넷째주(화) 10시
~11시55분(총7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위 과정

게임 개발, 웹툰 작가의 꿈을 이루십시오
모집분야: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 개발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지원 가능,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교 홈페이지(<https://www.soganggame.ac.kr>) 입학
사이트 참조 / 문의: 02)705-8678, 02)705-8218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내용: 마리아론 일체와 33일 봉헌기도
회비: 16만원 / 문의(접수): 010-9620-4820, 02)774-0448
계좌: 우리 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 분납 가능

낮반	3월2일~7월27일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저녁반	매주(화)	19시~21시	가톨릭회관 318-2호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 접수: 1월19일(화)까지
문의: 02)747-8501(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주간(2년)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종교교육 학과	(월~금) 야간(2년)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 과정	(화~목) 주간(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원 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배움터	매주(수) 14시~15시30분 / 무료 강좌
국악성가 반주장구	매주(수) 16시 초급, 매주(목) 14 시 중급·15시30분 고급
솔리스트 양성과정	매주(목) 19시
시니어아카데미 지도자과정	매주(화) 11시~16시
국악성가지도자 양성과정	마지막주(토) 13시~18시(월1회)
국악성가지휘자 양성과정	1월10일부터 첫째주(일) 17시~ 20시(월1회) / 강수근 신부 직강
국악성가연구소 월례기도	매월 둘째주(토) 14시

모집

예수성심전교수도회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예수성심의 사랑 안에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교우님 / 문의: 010-8735-4889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월6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언어

자기돌봄명상(서울포교베네딕도고척상담센터)
문의(접수): 010-6388-2665 최 막달레나 수녀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끼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치료재활 여성반 신규 개설-매주(수) 19시
때: 주·야간 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수) 19시~21시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심층적 자기이해와 가족관계 성장	1월19일~3월23일 매주(화) 오전 10시~12시(10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자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관계문제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AMR 명상심리치료 수지에너그램	내면아이 치유, 분노조절 외 청소년 및 성인 대상(상시)
의식성장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가치아·놀자'	개인, 가족(청소년), 소규모 팀(상시)
영어·불어성경	3월 첫째주(금·토) 개강

유관단체 일정

햇살 학부모 상담전화(햇살사목센터)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님의 상담을 받습니다
운영시간 매주(월~목) 10시~13시 / 상담전화: 02)744-0841

직원모집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시설관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 분야: 시설관리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
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월5일(화)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